

13경기만 뛰고도 짙은 존재감... 손흥민, 3개월만에 MLS 정복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간판 공격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이 약 3개월 만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를 정복하며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손흥민은 지난 23일(한국 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2025 MLS 컵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전체 8강)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2025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을 떠나 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했다. 내년엔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MLS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흥민은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 달러(약 391억원)를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적 사흘 만인 8월 10일 시카고 피어와의 경기에서 골장 데뷔전을 가졌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는 첫 선발에 첫 도움을 작성했다.

그리고 24일 FC델라웨어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미국 무대 데뷔골까지 기록했다.

LAFC 주전 자원이었던 가봉 국가대표 공격수 데니스 부앙가와 남다른 호흡을 자랑하며 골장 투입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정규리그에서만 9골 3도움을 달성한 손흥민은 PO까지 상승세를 이었다.

3경기 3골1도움을 더하면서 짙었던 MLS 첫 시즌에 13경기 12골4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밴쿠버전에서는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로스앤젤레스(LA) FC의 손흥민이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컵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PO)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경기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밴쿠버전 패배로 2025시즌 마무리 8월 이적 후 13경기 만에 12골 4도움 맹활약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는 메시와 맞대결 확정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15분 특유의 침착함으로 추격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50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탈락 위기에 빠진 팀을 연장으로 이끌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서 실축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으나, 내년을 더 거대하게 하는 데뷔 시즌이었다.

손흥민은 밴쿠버전 이후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며 "(밴쿠버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내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더 발전한 모습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시즌에는 개막전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와 격돌하게 돼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LS는 30개 구단이 동·서부 콘퍼런스로 나뉘어 진행되는 리그여서 다른 콘퍼런

스팀과의 대결은 성사되기 어렵다. 정규리그 중에는 단 6경기만 다른 콘퍼런스팀과 붙는다.

이에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선 서부에 속한 LAFC와 동부인 인터 마이애미는 경기하지 못했다.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을 위해서는 MLS컵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라야 했는데, LAFC가 탈락하면서 이 기회는 무산됐다.

대신 MLS 다음 시즌 개막일인 내년 2월 22일에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격돌한다.

서부 스타인 손흥민과 동부의 간판 선수인 메시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무안군,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준공

군민 150여명 참석해 다목적체육관 준공 축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22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다목적체육관'의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서삼석 국회의원,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해 다목적체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은 올해 9월 무안군 스포츠파크 내에 건립된 검도장 및 다목적경기장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424㎡ 규모로 조성한 대규모 체육시설이다.

이번 준공식은 군수를 포함한 주요 내빈의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해 건물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2025년 무안군 생활체육대추전 개최식'에도 주요 내빈들의 참석으로 자리를 빛냈다.

김산 군수는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된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다목적체육관 준공으로 체육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시설로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스포츠파크 단지 내 다른 체육시설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로 군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함평의 밤, 빛의 향연!

2025 함평 겨울빛축제

2025 Hampyeong Winter Light Festival

2025. 11. 28. (금) 16:00
2026. 1. 11. (일) -21:00

함평엑스포공원 및 읍 시가지 일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마라톤 동호회 '길벗 25' 동호인들이 23일 열린 '2025 김대중마라톤대회' 및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기념사 진행을 하고 있다.

길 위에서 모두가 '벗'... "함께 뛰며 건강한 조직문화 만든다"

전남교육청 동호회 '길벗 25' 마라톤대회 참가해 교육공동체 소통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마라톤 동호회 '길벗 25'가 지난 23일 열린 '2025 김대중마라톤대회' 및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교육공동체 간 연대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길벗 25'는 올해 5월 25일 첫 러닝을 시작으로 결성된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마라톤 동호회로 함께 달리는 '길 위의 벗들 25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직급과 직책을 떠나 서로를 활동명으로도만 소통하고, 매주 개별 운동내용을 공유하며 매월 합동주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길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세대와 부서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리는 발걸음마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처음 하프 코스에 도전한 레츠포님은 "10km 완주가 목표였는데, 길벗 25와 함께하며 첫 하프를 완주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 혹서기에 흘렸던 땀의 벗들 25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직급과 직책을 떠나 서로를 활동명으로도만 소통하고, 매주 개별 운동내용을 공유하며 매월 합동주를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길벗 25

는 구성원 모두의 자율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율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길벗25 회원은 "26년에는 정기 합동주를 비롯해 '학생과 함께하는 달리기', '지역사회 기부 러닝' 등 다양한 교육가족 간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길위의 벗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염경엽 감독·김연경, 체육기자가 뽑은 올해의 지도자상·선수상

12월 8일 체육기자의날 행사에서 시상식 진행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2025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염경엽 감독과 흥국생명의 우승 트로피와 함께 화려한 피날레를 맞은 김연경이 올해의 지도자와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24일 염경엽 감독과 김연경이 체육기자들이 뽑은 2025년 올해의 지도자상과 선수상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체육기자연맹은 지난 3일 회장단 추천을 받아 올해의 지도자상과 선수상 후보들을 선정했다.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연맹 소속 체육기자들 투표를 종합해 수상자를 확정했다.

염경엽 감독은 올 시즌 LG의 KBO리그 통합 우승을 이끌며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2024-2025 V-리그 챔피언에 올랐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명예롭게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양종구 체육기자연맹 회장은 "올해 1200만 관객을 넘긴 프로야구에서 LG의 통합우승에 염경엽 감독의 리더십이 큰 몫을 담당했다. 아울러 한국 여자배구의 상징과 같았던 김연경의 우승 성과와 은퇴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의 지도자상과 선수상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체육기자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뉴시스